

[illegible]

東京一日發聯合 一、지난 一月二十八日附貴代  
臣方面의 意圖을 買하야  
表의 最終的 圖說에 對하야 政府는 是는 어딘가지든

[illegible]

의國庫增收가되 안호면 안될것이다

의 各地에 分會를 組織한 時에 航空國防勸告  
年內에 飛打機五十機 計했다

新刊

30







지남三千일에 감겨 깨서  
定州署突然大活動

[illegible]



## 李 署 郎

<p>金  회-이 거절하였을뿐 아니라          失笑되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에</p>	<p>아마도 네 A          金정성이 해답을 내놓고 슬          이 취해 들어오니</p>	<p>妻 아-이 네가 사방이 인든지          말든지 부실하여도든지 말든지          네가 확실하냐 네 대답이 나          대별이냐</p>	<p>가다          야고 들어나          배두 배를 앞까지고 배가 붙어          간다</p>
<p>A 감지다 (妻를 만나러 간다)          B 흥인연이</p>	<p>妻 「먼저 사겼는다」          감지다</p>	<p>A 나두면 이 스텝별사 말은 어          머지않아 김씨에게는 조차          다 리어던지 할말이든 조차          사주초치요 「선경대」로          나간다</p>	<p>金 분별하여 두었으니 조차          흥인연이 나고 「마음속에서          들리다」 (영웅을 켜다 爆炸          를 리키다)</p>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어느편이 조치 못한 영향을 주는가?

[illegible][illegible]

【倫敦卅一日發  
通電】昨午股  
市暫安。觀費時  
毛。英國小說家  
乃創作家。其  
之曰。其。曾  
昨前。其。曾  
應。其。曾  
二。其。曾  
三。其。曾  
四。其。曾  
五。其。曾  
六。其。曾  
七。其。曾  
八。其。曾  
九。其。曾  
十。其。曾

그의 옷은 흙을 한바탕 옷 안  
정을 쓰고 두꺼운 의자에 의탁  
되듯 다 피하고 다 찢을 듯 고 비  
를 거꾸먼저 올라오는 것이 어엿  
나이다.

노사 람은 가만히 그사 람의 기  
운을 살펴보고있었다. 그슬릴  
한사 람은 더욱이 더욱이 더비를  
가려면서 노사 람이는데 었자  
습니다.

무심코 걸어오든 술취한 사 람  
은 노사 람을 보았습다. 그리고

[illegible]

만주국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나이다.  
그런데 만주국은 우리 조상 사림의 땅이므로 우리 사림과 그 후손들이 만주국을 내수국으로 인정합니다.  
만주국 사림은 어느 그들로  
편지하고는 어딘의와라 노랑  
파니만들어서 방울지어하고 향  
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이르렀다  
연두노노의 고개를 밟으리라  
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完)

一九三、十二月六作

四日 밤 七時 靑年會館

가서 노릇을 보므로 그 때부터  
 물자는 전초사간이 매우 적고  
 순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순산하기 무렵에 노릇에서 그만  
 두었다. 순산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만호직을 보아도 불합  
 당하다고 느낀다.

20세 이하      정산      단산  
 가서 노릇을      순산      단산

단산이 만호 직의 처음으로  
 유산에는 알이 없다고 한다.

[illegible][illegible]

“맞다 그대, 같은대 사납다!  
 크기도 왜론대! 이대 학이 가시  
 는대, 버르장머리 업시 학대리고  
 서이치...!”  
 “하렘지, 단정으로... 논사 람을  
 두쌍리보았습니다”  
 “논사 람은 만악에 발을잡을가  
 는것기러스면대하면... 한발...

**모**

만주창사 열반이는 서움의대  
다기리들 만주황제고지 치왕  
스름글 바랑소르의 어출람치  
「만주국조야찬」 만주조종안  
후-로(우양)만 만주조종안  
하고 외이면치 기의말개는 만  
났습니다.  
만주창사 열반이는 다시 다서  
...

▲新家庭二月號 現代開辦  
計要求計三女性，家庭經濟  
計現代生活世界與情勢二  
計方江口人物，中外  
一聯籍女子與人物，計別友  
學生，計社交國際協會，計女  
女流與社會，中國新女性印  
記及其他發行所，京滬外門

獨逸 芥 奥 特、 카이재르 作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一月三十一日倫敦에서

【倫敦卅一日發傳】 昨午度士習文卿費時至英國小說家及劇作家會、曾三回此氏三回、前年三月、與總理、傳廿三日、昨卅一日、三回、漸去、廿四、享年六十。

【一等】  
(2)  
柳

(四) 道사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  
다. 이 세상에는 이리케 복잡하  
고 혼란이 만만치 않다. 그 만  
한 것을 두들겨놓아야 하면 생각  
해 주어야만 조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법리가 여드레 소  
리가 들립니다. 그는 한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정취 예술가] 이 거

청년으로서 슬망하는 이리한 사람  
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했  
습니다.

한편서 물이서서 가라고 하였  
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유  
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슬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하였습니  
다. 그러나  
『슬픈한사람』이라고 단  
단히 써서 놓아 두자라니 하면  
가서 내다주게도 아  
무려 할일이 많  
을지 모르나 하였  
습니  
다.

[illegible]

는데 바르르늘어 었서 헛바리고  
 시위시...  
 하면서...  
 二월로보아습다  
 는사람은만약에말을들었다  
 는것과같습다.마련이한번  
 지냈스면.하엿스면.그리나  
 말은모르고아버트영이등  
 불거리가시작해서그렇습지  
 만.케줄의치기러는건.귀담  
 어들으실게.업습니다.나아  
 유안. (부르짖는다)그럼.난  
 아씨가  
 짚여도라와구나.유안아  
 맨손이  
 우승하

[illegible][illegible]

新家庭二月號 現代

[illegible]

寄附金

[illegible]